

토지보상 마찰 나주혁신도시 지연 우려

일부주민 반발 보상업무 사실상 중단 상태

토지보상가격 등을 둘러싼 토지공사와 주민들간 의견차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6월 이후로 늦춰지는 등 나주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당초 4월말로 예정됐던 혁신도시내 지장물 조사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면서 토지보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주변지역 땅값을 고려한 실보상이 책정 및 축산 폐업보상 등을 요구하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지장물 조

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당초 5~6월에서 7월말로 늦춰지면서 오는 10월 착공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지구지정 이후 토지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보상까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작업이 늦어지자 보상지역 인근의 토지

를 매입하기 위해 보상 대상 토지를 담보로 농업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5천여원 이상의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인근 토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인근 토지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반면 김천(경북), 진천·음성(충북), 진주(경남) 등은 5월중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보상계획이 공고된 대구, 울산, 제주 등도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에는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나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일정대로 보상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보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보상계획 공고도 당초 5월에서 6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혁신도시는 총 221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전력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전국 17개 공공기관이 나주 급전면과 산포면에 각각 들어선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삼성전자 '꿈의 세탁기' 美 출시 삼성전자가 고속 탈수시에도 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꿈의 세탁기'를 8일 미국시장에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볼 밸런스 드럼 세탁기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진동감쇄기술을 적용, 세탁조가 1분에 1천300회 이상 고속 회전하는 탈수 모드에서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유가를 비롯한 동, 니켈 등 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급속1차제품, 석유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1.4% 올랐기 때문이다.

또 참외 등 제철과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림수산물 가격이 1.7% 상승한 것도 작용했다.

최고기 값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이후 축산업자들이 출하를 늘리면서 전월보다 6.4% 떨어진 반면 돼지고기 값은 행락철 소비가 늘면서 2.4% 올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생산자 물가 1.1% 급등

4월 원자재값 뛰어
3년2개월만에 최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생산자물가가 3년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 등 과일 값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최고기 값은 크게 떨어졌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1.1% 상승해 2004년 2월(1.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5% 상승했다.

올 들어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월 0%로 보합세를 나타냈다가 2월 0.2%, 3월 0.5%로 상승 폭이

중소세 신고대상자 316만명

작년보다 14% 늘어...광주·전남·북 25만5천명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과세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광주·전남북 25만 5천명을 포함해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이하 중소기업)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3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20만1천명에서 5만4천명 증가(26.9%), 25만5천명에 달했다. 이는 종전까지는 추정 소득액 350만원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잡아왔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0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중소기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2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뒤 2003년 250만명, 2004년 265만명, 2005년 274만명, 2006년 277만명 등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전체 중소기업 신고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가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명을 개별관리 대상으로, 전산분석 결과 자료상 거래 등 혐의가 있는 1만5천명을 문제사업자로 각각 선정해 이들에게 상세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신용 용자 잔고 406억3,000만원

광주·전남 상장 기업들의 신용용자 잔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미수동결계좌 제도시행일인 지난 2일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25개 상장법인 신용용자 잔고는 모두 406억3천300만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55억3천200만원에 비해 351억1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5개월만에 634%나 늘어난 것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 506%보다 128%포인트나 높았다.

업체별로는 금호산업이 10억4천600만원에서 145억7천700만원으로 135억3천100만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폴리플라스 83억8천400만원, 셀러 35억5천600만원, 성원파이프 33억9천800만원 등의 순이다. /정필수기자 bungy@

주택대출 금리 한달새 0.21%↑

은행권 7월에도 가산금리 추가 인상 대기
실 수요자 이자부담 가중...가계부실 우려

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달새 최고 0.21%나 급등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 대출 예정자 등 주택대출 실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상과 함께 7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율이 오르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금리가 지난해에 비해 0.02~0.03%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 한달간 평균 0.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71~7.31%로 지난해에 비해 0.03%포인트 오르는 등 한달동안 0.06%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연 5.90~7.40%로 한달새 0.06% 올랐으며, 신한은행도 한달간 0.06% 오른 연 6.00~7.10%를 기록했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농협의 주택대출 금리는 각각 연 6.30~7.00%와 5.80~7.00%로 한달간 0.06%씩 올랐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올린 데다 CD금리 상승분 0.06%포인트를 반영해 한달동안 주택대출 금리를 0.21%나 올렸다.

상대적으로 금리인상폭이 적은 광주은행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67%에서 올들어 4월말 현재 6.08%로 0.41% 상승했다.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천100억원에서 8천450억원으로 350억 원 늘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1억원을 빌린 고객의 경우 1

년사이 연간 이자부담이 1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원인은 주택대출 금리는 CD금리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데 CD금리와 가산금리가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지난해 27일 5.00%로 2003년 이후 4년여만에 5%로 올라섰으며 가산금리 인상폭도 1년사이 평균 1%에 달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3%포인트 추가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가격이 5.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그룹 3세들, 금호산업 지분 추가 매입

금호아시아나그룹의 3세인 박철완·박세창·박준경씨가 금호산업 발행주식을 각각 3만1천300주씩 매입했다고 금호석유가 8일 공시했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금호석유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9만3천900주를 이들이 똑같이 나눠 매입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대

주주 지분이 적은 금호산업에 대한 지분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창 이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아들이며 박철완씨와 박준경씨는 각각 박정구 회장 및 박찬구 회장의 친자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자상거래 피해 1위 의류·액세서리

지난해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품목은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나타났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2만3천726건, 피해구제 신청은 2천24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상품군별로 보면 의류·신발제품이 712건으로 2005년에 이어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품군으로 집계됐고, 정보통신서비스 439건, 정보통신기기 25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문화용품(207건), 차량·승용물(149건), 보건·위생용품(70건), 가사용품(64건), 스포츠용품(64건), 문화·오락서비스(53건), 가구(41건), 식생활기기(41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8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품질하자 501건, 부당 대금 청구 307건, 물품 미인도·지연 240건, 애프터서비스(A/S) 미흡 146건 등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교중 공식지정 영어캠프/연수

영어 캠프 / 연수

영어캠프

- 참가대상: 초·중생 개인 및 그룹
- 캠프기간: 2007. 7. 20~2007. 8. 31 (6주코스)
- 접수기간: 2007년 5월 31일 까지(선착순 조기 마감)
- 캠프장소: URC(University of Regina Carmelli)캐나다

최고의 목표를 갖는 안전, 둘째가 화합능력향상, 셋째가 문화체험이라는 순서를 정하고, 영어능력향상을 배가시킨다. 동시에, 즐거움속에서 영어와 친숙해지고 영어적 사고를 배양하며, 캠프기간 후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줄 캠프이다.

“노는 캠프가 아닌 공부하는 캠프”

학부모님들의 바램에 충실하고, 영어캠프의 주목적이 실제 영어실력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여 관광형태의 문화체험형태를 철저히 타파하고 4시간의 정규 수업, 2시간의 배움 및 문법 수업, 2시간의 영작 수업, 2시간의 단어 암기 등 총 1일 10시간의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실질적 영어 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수업 진행
 - 한국학생들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필리핀 정규 수업과정(초등학교~고등학교)에 레벨별로 배치되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스포츠 등으로 한정
 - 학생 3명당 1명의 원어민 담당 선생님이 지정 정규수업 이후 취침시간전까지의 시간을 같이 하며 정규 수업시간의 복습과 예습, 영작 및 단어암기과 개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점검
 - 기술사 생활을 통한 Total Care
 -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생활상 보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자녀분들의 생활상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 운영

영어연수

- 연수대상: 중학교 이상 성인까지
 - 본인이나 스스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자기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연수기간: 4주, 6주, 8주 과정(월 단위로 연장 가능) 연수기간은 변동 자유로이 선택
- 연수장소: 홀스타이(미달라) 오티가스

단기간에 집약적인 영어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최고의 목표를 학업능력향상으로 정하고,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완전 배제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level에 맞는 철저한 맞춤식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학생의 영어 능력을 신장 시켜 주는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Grammar, Reading, 주제를 토대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TOEFL, TOEIC, IELTS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며, Reading, Speaking, Writing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원어민과 맞춤형 수업 진행으로 효율을 극대화
- 원어민 선생님들의 자질 우수
- 프로그램 우수
- 선생님이 방문 수업, 이동시간의 절약 및 안전 보장

함께가 특별 이벤트

캠프 및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전화영어 1개월 무료수강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camp.com

한국교중 회원 자녀분들의 신청서 특별할인!!

한국교중 전화영어교육 전문회사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한국줄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

지정 병원

전남등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진 첨단하나산부인과 973-0910 이창의의원 953-7582 고은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구 한중가정의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이성재이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외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의원 234-7571 북구 한술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양정형외과의원 571-2277 삼각연합의원 251-0042 정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안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유병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통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의학과의원 365-7582 호암산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92-8561 나주 이림수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호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방병원 720-3500 모두병원내과 725-7568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